

골프지존 신지에 "2승 기다려"

LPGA 스테이트 팜클래식 3R 선두에 1타차 3위

박세리·김인경도 10언더 공동 4위 '우승 가시권'

박세리(32)와 '박세리 키즈(Kids)'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 팜클래식에서 나란히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박세리는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릭 골프장(파72·6천74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4개씩 맞바꾸며 이븐파를 쳤다.

10언더와 206타의 박세리는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우승 가능성은 큰 편이다. 또 박세리의 '성공 신화'에 영향을 받아 골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박세리 키즈'로 불리는 1988년생 동갑내기 신지에(21·미에셋)와 김인경(21·하나금융)도 상위권에 올라 우승 가능성을 불쭙했다.

신지에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세 타를 줄여 11언더와 205타, 단독 3위에 올라 공동 선두인 크리스티 커, 크리스티 맥퍼슨(이

상 미국)을 1타 차로 바짝 뒤쫓았다. 3일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우승 이후 시즌 2승째를 거둘 좋은 기회인 셈이다.

김인경도 버디 5개, 보기 2개로 신지와 똑같은 성적을 내려 10언더와 206타, 박세리와 함께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맞게 됐다. 특히 선두에 2타 차인 공동 4위만 7명일 정도로 마지막 날 우승의 향방은 접미치 어려운 상황이다.

10위권 밖이긴 하지만 이지영(24)과 박희영(22·하나금융)도 9언더와 207타, 선두와 3타 차 공동 11위에서 역전 우승을 노릴 만하다. 전날 공동 16위였던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보기 7개에 더블보기 1개, 버디 4개로 5타를 잃는 부진 속에 1언더와 215타, 공동 62위까지 밀렸다. /연합뉴스



7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유소연이 우승이 확정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소연, 2주만에 시즌 2승

KLPGA 우리증권 챔피언십 우승

유소연(19·하이마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은 7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파72·6천37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와 68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와 204타로 2위 양수진(18·넵스)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최혜용(19·LG)과 9타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던 유소연은 시즌 2승째를 올렸고 상금 6천만원을 보태 시즌 상금 2억원을 돌파

(2억715만원)했다. 2억5천534만원으로 상금 부문 선두인 서희경(23·하이마트)과 격차를 5천만원 정도로 좁혔고 다승 부문에서는 서희경과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시즌 대상 포인트 30점을 보낸 유소연은 80점이 돼 2위로 뛰어올라 역시 선두인 서희경(116점)과 격차를 36점으로 줄였다. 결국 이번 우승으로 유소연은 2009시즌에서 서희경과 '양강 구도'를 만드는 계기를 잡은 셈이 됐다.

신인인 지난 시즌 개막전 우승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하다가 지난달 21일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대활주 끝에 우승 불교를 뜨더니 한 달도 안 돼 개인 통산 3승째를 올렸다. /연합뉴스

김민휘·양제윤 우승

호심배 아마골프 남녀부

제7회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김민휘(신성고 2년)선수와 양제윤(대전체고 2년)선수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7년 대회 남자부에서도 우승했던 김민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4라운드 합계 21언더와 267타의 뛰어난 기량으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휘 선수는 우승 소감에서 마침 오늘 생일을 맞은 아버지께 우승 트로피를 바친다는 소감으로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여자부의 양제윤 선수는 2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를 경신하는 등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양제윤 선수는 3라운드 합계 16언더와 200타를 기록했다. /채희경기자 chae@

홍순상 2년만에 '우승컵'

KPGA SBS 코리아투어

'꽃미남' 홍순상(28·SK텔레콤)이 한국프로골프(KPGA) SBS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 제5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2년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홍순상은 7일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골프장(파72·6천8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합계 4언더와 284타로 박상현(26·양도레기골프)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번째 홀에서 파를 잡아 승패를 갈랐다.

2타차 선두로 4라운드를 맞았던 배상문(23·키움증권)은 4타를 잃어 공동 5위(이븐파 288타)로 밀렸다. /연합뉴스

바람의 아들 "역사를 흠치고 달렸다"

이종범 5일 최소경기 500도루 1천득점 달성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이 지난 5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최소경기 500도루와 1천 득점의 대기록을 새로 쓰며 '야구천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5일만의 질주였다. 지난달 21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499번째 도루에 성공했던 이종범은 5일 6회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상현의 타석 때 베이스를 훔치며 마침내 500기에 올랐다.

히어로즈의 전준호(549개)에 이어 프로야구 사상 2번째, 전준호의 1705경기보다 266경기 앞선 1439경기만의 대기록이었다.

프로데뷔 첫해인 1993년부터 73차례 베이스를 훔쳐낸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1994년에는 무려 84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했다.

1998년 일본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5시즌 동안 이종범이 기록한 도루는 310개, 일본에 있던 2년6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500도루의 가치는 더욱 값졌다.

500고지에 오른 이종범은 2루 베이스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세리머니로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러나 팬들의 함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도루에 성공한 이종범은 이어진 최희섭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최소경기 1천 득점의 기록도 함께 갈아치웠다. 2002년 장종훈, 2004년 전준호 그리고 2005년 양준혁에 이어 역대 4번째 기록이었다.

지난 1993, 94, 96, 97년, 2004년 총 5시즌에 걸쳐 득점왕에 올랐던 이종범은 1439경기만에 1천득점을 채우면서 양준혁이 달했던 최소경기(1천522경기) 기록을 83경기 앞당겼다.

이종범은 앞선 2일 두산전에서 3회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를 때려내며 프로야구 통산 12번째로 2천500루타를 달성하는 등 '불혹의 투혼'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야구 기록을 새로 쓴 다음날 이종범은 몸살을 앓았다. 대기록에 대한 긴장감으로 한 주를 보냈던 만큼 목표를 달성한 뒤 긴장이 풀려 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종범은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나서 볼넷 두 개를 얻어내는 등 2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V10'을 향한 행보에 힘을 보탤다.

7일에도 우익수 겸 1번 타자로 나서 후배들을 이끄는 등 이종범은 이용규·채정범 등 부상으로 빠진 후배들을 대신해 수비와 타격에서 모두 고된 행군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장의 식지 않은 야구 열정이 만든 대기록은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팬들의 기대가 있어서 변함없이 그라운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종범은 언젠가 아들 정후근(서석초 5년)이 자신의 기록을 넘

연도	도루
1993	73
1994	84
1995	32
1996	57
1997	64
2001	7
2002	35
2003	50
2004	42
2005	28
2006	10
2007	3
2008	9
2009	6



KIA 타이거즈 이종범이 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2009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홈경기에서 6회말 1사 김성현 타석 때 2루 도루에 성공, 500 도루를 달성하고 2루 베이스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서주길 바라고 있다. '야구 천재'에서 백전 노장으로 그리고 또 야구 선수 아들들 둔 아버지로써, 이종범의 야구는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8일(월)
- ▲NBA 파이널 2차전 <LA레이커스 : 올랜도>(09 : 00-MBCSPN)
 - ▲코리아메치컵오픈대회 (14 : 10-KBS1)
 -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16강전
- (14 : 5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 요미우리> (17 : 50-SBS스포츠)
 - ▲대교 눈높이 2009 WK리그 <현대제철 : 서울시청>(18 : 50-KBSN SPORTS)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매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총/총수	감정가	최저가
서울	금호동 중흥아파트	23	18/12	8300만	8590만
	홍익동 대우테크빌2차	46	17/7	1억8500만	1억2990만
	차림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8600만
	상봉동 삼성타운	33	17/15	9000만	8300만
경기	용문동 오리원세상	55	22/22	4.9억	2억8000만
	광운동 풀빛아파트	32	20/17	1억2000만	8400만
	치평동 한빛아파트	24	15/1	7800만	5460만
	송파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8300만
충청	봉산동 리인아파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부림동 미래아파트	27	15/5	6000만	4200만
	주원동 금영아파트	32	20/9	1억2800만	8900만
	산수동 광영아파트	50	15/12	1억8500만	1억1500만
전남	운림동 리인아파트	31	18/11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6600만
	안산동 우미아파트	32	18/7	8000만	5600만
	홍익동 푸르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전북	홍익동 풀빛아파트	27	5/3	4300만	3000만
	신원동 용두마을	24	20/15	6200만	4900만
	원주동 현대아파트	61	20/14	1억9500만	1억1500만
	주원동 부림아파트	24	12/2	5400만	3700만
경남	함안동 미래보자	58	18/12	1억7000만	1억1800만
	문성동 우미마을	32	16/4	9000만	6900만
	봉곡동 대우테크빌2차	33	14/5	1억3000만	1억1900만
	김해동 금호타운	31	14/4	9000만	6900만
부산	중앙동 미래보자	33	20/14	9000만	6900만
	마곡동 삼성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신원동 부림아파트	26	20/8	6300만	4400만
	신원동 현대아파트	34	15/12	1억3500만	9400만
대구	원주동 삼성아파트	27	22/18	8200만	5700만
	원주동 현대아파트	34	15/8	1억3000만	9100만
	운남동 주공7단지	21	25/12	6500만	4550만
	구미동 대우테크빌2차	33	14/5	9000만	6900만
충남	서산동 미래보자	33	20/14	9000만	6900만
	마곡동 삼성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신원동 부림아파트	26	20/8	6300만	4400만
	신원동 현대아파트	34	15/12	1억3500만	9400만
전북	원주동 삼성아파트	27	22/18	8200만	5700만
	원주동 현대아파트	34	15/8	1억3000만	9100만
	운남동 주공7단지	21	25/12	6500만	4550만
	구미동 대우테크빌2차	33	14/5	9000만	6900만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전과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센놈이 있어 희망을 드립니다. 우뚝 솟으며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내로 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사진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상담 070-7786-8710/070-7786-9710
전화 010-5296-4114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